

社說

대학자치와 평의원회 품격

최근 우리대학교 평의원회의 활동상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성회 예산안을 3억여원이나 깎아내리고 기획연구실내의 국제학술교류부 설치안을 보류시키는 한편, 평의원회 심의사항 가운데 결산심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제심의까지 거치면서 확정시켜 놓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 본래적인 학문의 연구는 그 성질상 당연히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낳는다. 그런 까닭에 현존하는 지배체제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존립에 유익할 때에만 학문의 연구를 장려하고 존중하며, 반대로 자신의 존립에 불리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학문의 연구를 억압하려고 한다.

학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에 의한 정신적 활동이지만, 그것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하며 연구의 성과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연구자 집단과 학생집단의 장(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이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공권력이나 대학의 설치·관리권자 또는 그밖의 외부적 세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구성원 자신, 즉 교수회에 의한 대학의 자주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는 위계제(位階制)가 아니라 동료(同僚)의 원리에 입각한 교수 상호간의 동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행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대학의 행정은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행정의 위계질서 속에서 비교육적 통제가 가해지는 경우 대학의 근본 목적이 심분 발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법규 자체에는 교육의 자주성 내지는 대학의 자치라는 관점에서 어긋나게 만들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은 전체 교수회의 대의 기관으로서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특히 대학행정과 재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 시정하도록 해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있다. '권력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하나의 수단이지만, 억제력이 없는 권력은 악이다'라는 아스퍼스(K. Jaspers)의 말처럼, 권력의 자의적(恣意的)인 행사를 방지하고 대학운영의 실체를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도 대학평의원회의 견제·여과기능은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대학평의원들은 이성적 판단과 대학발전이라는 대공적인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의 편협한 주장을 공론화하거나 안전을 처리함에 있어 사전 답답하는 소아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중간에서 서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사고방식이 대학내에서 조차 사라지지 않을때, 지방자치들 선도해야 할 대학 자치의 본모습은 형편없이 구겨질 것이다.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품격은 그 대학의 자치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에 모든 대학인들의 기대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6·7월 학사일정

△6월21~28일 : 제1학기 기말시험 △6월28일 : 제1학기 종강 △6월29~8월20일 : 하계방학 △6월 중 : 수학분야 초청 강연회(기초과학연구소) △7월 3~31일 : 학기제설 수업 △7월 중 : 외국어특강(외국어교육관) △7월 중 : 전도고교생 영어경시대회(영자신문사).

5·18은 도대체 언제까지

불투명한 어둠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오늘은 80년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항쟁을 벌인 날로부터 열다섯 해가 되는 날이다.

광주학생들은 명령을 받은 계엄군들에 의해 저질러졌고 피해자는 시민이나 학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80년 5월 3공수여단 33대대 지대장이었던 문아무개, 같은 부대소속장교 전아무개씨는 인간적인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광주'의 울가미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더욱이 진압의 맨 앞에 섰던 하사관이나 사병들이 겪는 죄책감과 후유증은 정신착란까지 일으켜 형수를 살해할 정도로 완전히 그 자신의 삶마저도 파괴하는 아픈 기억으로 남고 있다.

그들은 지난 88년 광주청문회가 종결될때 최고 책임자들은 물론 상관들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보고 그들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고 한다.

5·18은 언제까지 불투명한 어둠속에 갇혀있어야 하는 것인가. 소위 '문민 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진정한 그들과 다른 민주체제를

세우고자 한다면 광주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김대통령의 임기 중반인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해서 고소·고발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부진하다고 한다. 김영삼 정권 성립뒤 피해자 쪽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소시효를 얼마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은 검찰 조사를 용기있게 시작하였지만 "광주항쟁은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신의 심판이 아니다. 엄연히 역사의 수레바

퀴에서 살다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의 삶인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단지 현실상황에 급급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정권에 굴치아픈 일들은 회피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지금의 광주항쟁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역사를 찾지 못하고 역사의 주제로 서지 못하고 있다. 진실은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더 명확히 밝혀질때까지 제주의 4·3역사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살상의 책임자를 먼저 응징하는 작업없이 얼룩진 현대사를 바로 세우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임수진 사학3)

특자의소리

'특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를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매내외, FAX: 58-2204)

연극공연시간 지키자

관객도 자기중심적 생각 버려야

어제는 극연에서 마련한 연극 '불꽃 꺼주세요'를 보러갔다.

학생들이 하는 연극은 아마추어가 한다는 선입관때문인지 자주 가지 않았었다. 표를 파는 내 친구에게 등을 떠밀려다니고 있어서 갔다. 공연시간10분전. 나는 늦었을까해서

현관문밖에서 기다리는데 이젠 관객과 0명. 아니 한명쯤 있었다. 학교에서 하는, 게다가 첫 공연이기 때문이었을까 하여든 황당했다. 5분전. 그래도 여전히 공연장은 썰렁. 공연시작 시간이 됐다. 그런데 시작할 생각을 안하는 것이었다. 5분정도 지나니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관객이 너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연극내용이 어떠했는지는 몇명의 관객이 와서 봤다는게 중요하다는 건가. 물론 많은 관객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팜플렛과 티켓에 버젓이 적힌 공연시간은 지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종 이런 공연시간은 어느지 마는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객인 우리학생들도 좀 늦어도 되겠지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하지 않을까.

공연시작 10분전까지 공연장에 가는 것은 기본적인 예티인데 이런 작은 것도 못지키면서 어떻게

게 지성인이라 할수 있겠는가. 어쨌든 이번 연극의 내용만은 괜찮았던 것 같다. (문춘희 수학4)

축제마무리 잘하자

이번주는 아라축제 기간이다. 여러 학과들과 여러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학과들과 각 동아리들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가지유

인물을 배포하고 있고 교문에서 들어오다보면 여러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즐겁고, 각 학과나 여러 동아리들이 자기의 동아리를 홍보하기에는 좋다. 하지만 여러가지 행사들에서 이 행사가 끝난후의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저번주에는 각 단과대별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대운동장이나 소운동장은 끝난후 끝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

이것은 제대인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성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한다. (이승철 측산 4)

자판기 이래도 되는가

100원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뭐 마실래"

"나 커피"

"난 우유"

아니 세상에 뭘들만...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특히 잘 마시지 않는 우유나 울무차는 뽕이가 겁이 난다.

혹시 뽕물이 나올 것 같아서.

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아무리 하소연할수 있다고 해도 100원으로 찾아나서기가 좀 어색하다.

아주 사소한 일 같이 보이고 100원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 또한 있었지만

이것은 100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신뢰·민음의 문제인것 같다.

어쩌다 우유가 나오지 않고 뽕물이 나오는 자판기에 어느날 우유가 나올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판기!

이제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뽕물이 아닌 맛있는 음료수가 나온다면 서로를 신뢰할수 있겠지.

뽕물인다면 여름이 되었는데 차가운 음료수가 있기는 하지만 얼음과 함께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윤운진 측산2)

제대신문을 읽고

어떤 여과 과정을 거쳐
영화평들을 읽고 있는지

제대신문이 영화평에 점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난 영화를 꼭 즐기는 편이다. 그래서 잡지는 신문이든 영화평이 나와 있으면 관심을 갖고 읽는다. 제대신문에 실리는 영화평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있다.

그런데 제대신문에 실린 영화평이 하나같이 너무나도 비판적이라는 데 놀라지 않을수 없고 평론한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일반 학우들이었으므로 알고 있다. 영화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어서 그런 평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영화평을 해주는 전문 영화평론가들도 종종 비판을 받기가 일쑤인데, 아마추어 영화평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비판적으로 쓰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온갖 비평을 받는 영화가 그렇게도 흥행이 잘되고 극장들은 그런 영화의 광고문구에 "뜻깊은 몇백만 관객들"라는 표리를 달아주는지?

난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이 하는거지 영화평론가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영화평론은 영화에 대한 개론적이고도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체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막상 보려고 생각한 영화도 그런 비판적인 평론을 읽은 후에 그만두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제대신문이 얼마만큼 여과과정을 거쳐 이런 평론들을 실는지 의문스럽다.

(오명성 원예2)

매·체·비·평

■ 최근 노·사분규관련 시설들을 보며

노조에 대한 반감만 부채질

중도적인 입장에서 노·사 분규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얼마전부터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와 한국통신노조간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국내에서 기간산업이라는 점과 단일규모로는 최대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부의 강경대응은 물론 노사분규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입장은 대변하지 않은채 회사와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글이 있었다.

같은날 한겨레 신문 사실에서는 정부와 노조의 문제점을 형평성 있게 글을 쓴것을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통신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전화는 물론 거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킨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부에서 시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데, 덩달아 언론에서까지 한쪽을 옹호함으로써 국민들이 노조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한국통신의 노·사 분규 사태는 정부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부터 파악한뒤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측의 입장만 갖고 노조간부를 구속한 다거나 사업장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노조원의 불만을 가중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불만이 민주노총 계열의 집단 파업을 앞당길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오성훈 원예2)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모습.

8월2일,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혁명은 바로 한줄의 낙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하는
영동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파리는 온통 낙서투성이다.
코트레옹은 파리지앵들은 불어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것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파리아가 하고 적이 실망도 했었지만
오래 전통이 파리 특유의 빛으로 발하고 있음을 이제 조금씩 감지하고 있다.
이제 곧 밤기차를 타고 니스로 간다.

프랑스 남부의 푸른바다가 만드는 물빛 새벽을 보고싶어.
대한항공 기내에서 맛있는 수천퍼트 상공의 찬란한 새벽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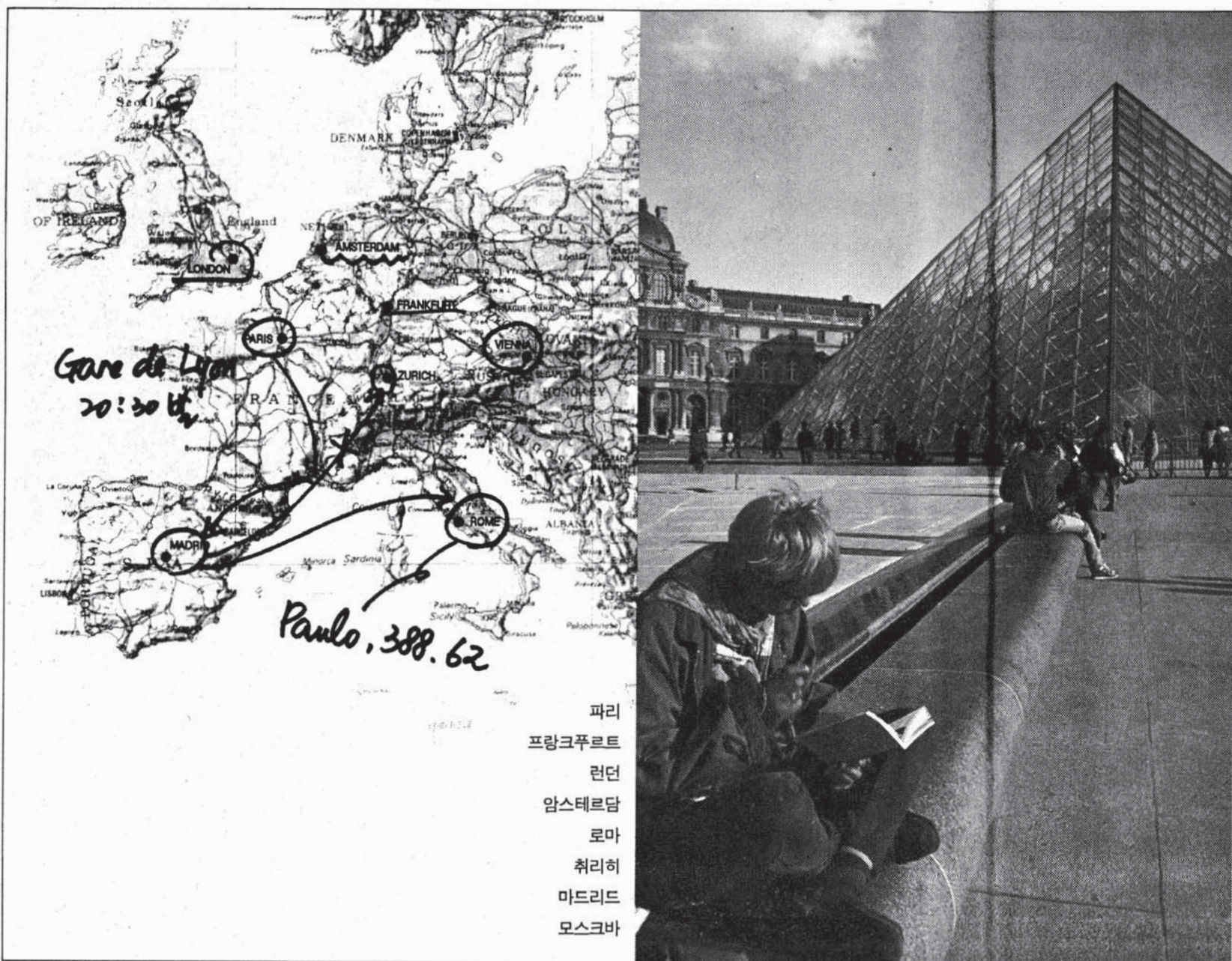
대한항공이 젊은 배낭여행자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프스—즐거움 여행과 함께
마일리지 누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예약 및 문의 : (02) 756-2000



21세기 관광을 위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기획논단 해방 50년과 한국의 과제3 — 자주외교와 새로운 한미관계

냉전논리·친미일변도 정책 탈피

한미간 불평등조약 파기... 대강대국 외교 독자적으로 전개해야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부담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어왔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오늘의 이 여파로 국제상황은 불과 몇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의 새로운 변화는 동북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북미관계 개선조짐과 미·러·일·중의 남북한 교차상인 움직임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해빙'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남단에서는 냉전시대의 논리와 통치가 유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탈냉전시대, 소위 문민정부시대, 통일시대의 한반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관계인 화해·평

인한 항상적인' 정권 불안정 등은 역대 군사정권이 친미정책에 사활을 걸도록 하였다.

냉전시대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군사·경제·정치적 이익의 확보가 그 핵심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대소전전기지로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막대한 군수시장 및 기타 상품시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과 한미관계의 성격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대 한국정부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1945~48년 남한에 대한 군사통치를 직접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휴전협정에서 북한과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미국은 미군주둔과 군사동맹 등으로 한국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해왔으며 역대 한국의 독재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 정책수행에 당시 한국정부가 결립물로 작용할 때에는 정권의 교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왔다.

여기에서 한미관계의 본질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임을 재분할 여지가 없다.

한미간의 한미관계의 대미외교는 이러한 한미관계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일반적인 의미의 외교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 민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외교의 철리를 삼으며 그로써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기보다는(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외교) 외교상대국의 이익과 요구를 중심으로 그것도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이런 외교란 '외교'가 아니며 실형 '외교'라 이름붙인다해도 지각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은 '친미시대외교'라 불려왔던 것이다.

2. 문민정부의 등장은 한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군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의 등장이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며 실제로 김영삼, 클린턴 양 정부내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평등'과 '동반자 관계'라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군사정권시대의 친미외교정책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미관계에서



◇미국이 한미관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냉전 외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인이 과거에 집착한다면 퇴보를 면할 수 없다. (위) 제23차 한미연례안보회의.(아래) 지난 5월 19일 지하철안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주한미군들.

양대 현안이었던 UR과 핵문제에서 현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이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UR문제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쌀 수입개방 약속을 함에 따라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결국 미국을 택하는 현 정부의 행위를 보여주었으며 '쌀개방장대불가'라는 우리 국민의 희망을 담은 대통령 선거공약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파기되어 버렸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공조체제 유지'가 최대의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추종하다가 미국이 대북협상 정책으로 돌아서자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북미간 관계개선 접촉을 이른바 '자주외교'라는 이름으로 해방하고 거역의 협세를 쓰며 위싱턴을 넘나들며 구걸외교를 펼치고 있다.

군사분야를 보면 올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의 계속된 증액(95년 약 9억불 증가 예정) 등 대미의존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 등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줄어들었으나 군사·대북정책·무역 등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한미관계의 정상화란 국제사회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 냉전시대의 외교방식인 친미일변도 정책을 탈냉전대국화

3. 냉전시대의 관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한미관계 정립해야

북미관계 정상화의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냉전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 '정상화'를 꾀하지 못하면 한국은 북한을 동반하여 3류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한미관계의 정상화란 국제사회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 냉전시대의 외교방식인 친미일변도 정책을 탈냉전대국화

◇연이은 미군범죄를 보며

한미행정협정 독소조항때문 정부 '속수무책' 종속관계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난 5월19일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미군들이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다 성희롱하고 죄없는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이어, 21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미군 8명이 우리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도망치는 기미는커녕 농담을 주고받으며 파란대소하는 모습은 우리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쩌하여 미군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안하무인의 행동을 벌이는 상황이 됐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한미관계가 불평등과 불합리, 그리고 주권침해 투성이임을 보여주는 여러 양상의 반영임은 물론이다. 특히 지난 91년 개정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지 50년간 수많은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행정 협정에 최근의 잇따른 치욕적 사건을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 치외법권 인정 △재판권의 미군 이양 △필요에 따른 한국인 구속 등이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내용이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정인지 의심스럽지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미군범죄 관할권에 관한 조약, 즉 미군이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느편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군당국 및 대한민국 당국(대한민국당국이 재판권의 1차적 권리를 가짐)양쪽 모두가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형사재판권과 재판관포기조항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재판권 포기요청이 있으면 1차적 권리를 미국에 포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측의 재판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미국측에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측에 재판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통계를 보면 68년 한미행정협정 체결후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 미군범죄의 0.5%로 NATO 32%, 필리핀 21.2%에 비해 극히 적으며 그중 대부분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대부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1년에서 89년까지 주한미군의 범법행위 가운데 재판에

기소된 사건이 1만2천7백1건인데, 이중에서 우리정부에 의해 처리된 것이 61건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권한행사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한미행정협정의 이러한 불평등한 사항은 아직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조약체결을 규정한 뒤, 14년만인 1966년 7월9일 체결되었으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민주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한국측의 불평등한 요소는 무시해 버리는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막아, 강도, 강간과 미국의 퇴폐적인 문화를 전염시키는 한반도의 미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군은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그들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정몽복 기자)



신 석 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

등·선린관계의 기초가 될 '대미 자주외교'는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왜 자주외교인가?

한국은 미소냉전체제와 남북분단 상황에서 군사분야를 축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불평등관계를 맺어 왔다. 이는 제3세계의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경제적 수탈과 정치간섭에 시달리는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국제사태이기도 하다.

한미관계의 불평등구조를 심화시켜온 요인중의 하나로 한국의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군작전지휘권을 비롯하여 무기, 군수장비, 군사교리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미국의 통제권 하에 있는 한국군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장악, 유지해온 군사정권은 필연적으로 친미정책을 강간으로 해왔다. 특히 5·16, 12·12 등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또는 용인, 국민지지기반 취약으로

시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자주외교, 통일외교, 전방위외교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자주정치·통일정치에 기초할 때에 성립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행정협정 등

한미상호간의 온갖 불평등조약의 전면파기나 파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그물망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반의 정책결정 구조, 예를 들면 한미연례 안보회의·한미상공장관회의 등의 역할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냉전시대의 논리(대소봉쇄정책)로 그 주둔의 명분을 구했으나 새로운 국제관계의 현실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정부가 발표한 신동태안보전략(EASR)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다. 미국

이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포기하고 현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한다고 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과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부담한 방위비 부담 증액을 저지해야 한다.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의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력의 점진배치, 전략핵 중심의 핵무장 정책 등 기존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고 군사비 절감과 미군 주둔비 한지부담의 증액 등을 통한 운영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91년 한미간에 한국이 '향후 5년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을 부담'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95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져 1/3수준보다 올릴 것과 세계평화유지활동에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이번 EASR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자주화의 지름길은 민족간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역량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립·비군사 동맹을 지향하는 대강대국외교를 자신만만하게 펼칠때만이 21세기 민족번영의 출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이미 미국이 한미관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냉전외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인이 과거에 집착한다면 퇴보를 면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동안 동북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 서로 으르렁거리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걸머져왔던 주변 4대강국들이 서로를 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여기고 있다. 유엔에 한반도 분단을 야기하고 냉전정치를 발생시켰으며 한국민중으로 하여금 미국의 예속과 침략의 불모지로 되게했던 주변 4대강국이 한반도에서 새로 대등하는 통일국가로 자국에 적대적이거나 손해를 끼치는 국가, 또는 4대강국의 역관계를 혼들여놓을 국가가 아니라면 굳이 반대할 의의도 그럴 처지도 아닌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과도적 상태는 곧 다음 구도를 예비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구도속에 우리 민족은 예속과 분단상태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주와 통일국가로 참여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INFORMATION Is POWER.



중앙일보 창간 30주년



섹션신문, 정보신문 중앙일보를 읽어보셨습니까?
섹션마다 깊고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무한정생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중앙일보로 정보를 읽으십시오. 미래를 읽으십시오.

월요일엔 자동차와 레포츠 섹션, 화요일엔 뉴미디어 섹션...요일마다 새로운 섹션으로 다양한 정보를 드립니다. 기자들의 수준이 다르므로 정보의 수준도 다릅니다. 모든 기사를 전문기자화하여 하나를 전해도 알기쉽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립니다.

中央日報

수백 걸작기사의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가려진 부분까지 제대로 파악한, 그래서 깊이가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정보도 세계화되고, 독자도 세계화됩니다. 국내 신문 중 가장 많은 수의 특파원들이 발로 뛰면서 취재한 생생한 정보를 드립니다.

□ 외도천의 오염실태와 그 대책

농업폐수·생활하수·쓰레기 등이 오염 주범 무수천개발 재검토 등 보전대책 수립 시급

과학적인 환경운동

제주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환경운동의 방식은 없을까? 구체적인 환경보전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제주도의 환경운동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사업으로 수질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로 하고 94년 12월부터 95년 4월20일까지 외도천 오염원 지도 작성 사업을 경찰청 환경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외도천은 제주도 상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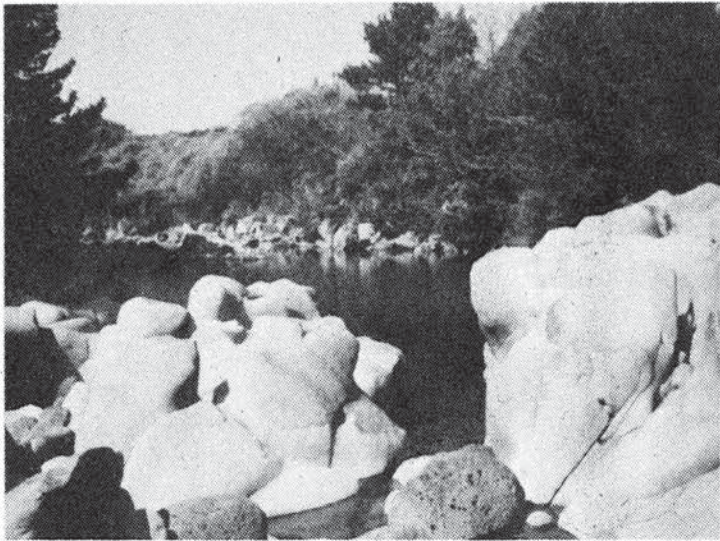
제주도에 있는 하천의 대부분은 건천이나, 외도천은 아직까지 비교적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천이다. 여기에서 채수되는 외도수원은 제주도 삼도 1·2등과 용담 1·2등, 연동, 오라, 도두, 이호, 외도동 등 제주도 서부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도천의 지질과 지형

외도천은 한라산 여러목계곡에서 시작되어 북제주군과 제주시 경계지역인 광령계곡을 지나 제주시 외도2동까지 흐르는 긴 하천이다. 평상시에는 광령계곡에 소량의 물이 연중 흐르고 있으나 광령교 무수천 근처에서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제주시 도평동 부근에서 다시 솟아나 흐르기 시작하여 바다로 유입된다.

하류 근처인 외도교에서 상류쪽으로 약 150m지점에는 제방이 있어서 만조시에는 이 제방 아래까지 해수가 들어와 담수와 섞이며 이 제방에서 다시 상류로 약 200m지점에 이르러 제주시 상수도 취수를 위한 또 하나의 둑이 있어 이곳에서 상류쪽으로 약 500m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연중 수량이 풍부하여 어류서식 조건을 충분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잠재



◇외도천 하류에서 2km지점에 위치한 지하수 용출원 상태.

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해도 은어떼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외도천의 수질

수질분석 결과 외도천 수질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원수 2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수천 유원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상수원수 3급으로 전락할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면의 제약상 자세한 자료는 실지 않는다.

외도천의 수질 오염원

- 1) 주요 수질오염원은 크게 비료·농약 등에 의한 농업용폐수, 생활하수, 그리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이 있다.
- 2) 농로, 하수로 등의 오염물질 배출원은 식별이 쉬웠으나, 지하로 스며드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3) 향후 무수천 유원지의 본격적인 개발로 오염원 배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도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있는 시설

- 호텔·휴리데이 호텔(신축중), 비버리힐스 호텔.
- 별장:하류지역 상대보전지역 내 경찰고위간부였던 사람의 건물(무허가).
- 사라가든:사라동에 위치.
- 오성레미콘:도평동 174-2
- 천조가든:광령교 밑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
- 가든식당:광령교 옆 10m

외도천 보호를 위한 대안

- 1) 농업폐수에 대한 대책
- 외도천 하류변의 밭에서 발생하

는 비료, 농약 등에 의한 농업폐수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밭에서 하천쪽으로 파 놓은 도랑을 없애고, 대신에 외도천 주변지역에 하수관을 설치하여 밭에서 나오는 농업용폐수를 도두동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은 자갈, 모래, 흙, 돌 등을 활용한 간이자연정화시스템을 밭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음식점 배설 폐수에 대한 대책

외도천 주변에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간이자연정화처리시스템을 거치고 난 후 하수관을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무수천 유원지 개발 재검토

무수천은 천혜의 자연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트레킹 혹은 생태관광이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수천은 위 두가지 요소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무수천은 트레킹 장소로 제주도에서 지정·보호하고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관광시설은 현재의 조성계획처럼 무수천 주변에 밀착하여 설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400~5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무수천 유원지 일부조성사업지구에 상대보전지역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외도천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보전지역 선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제주도와 제주시당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합과 동시에 새로운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원지에서 나오는 정화처리된 폐수도 하수관 설치를 통해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

인터뷰 외도천 조사팀장 현영진 교수

“주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

△외도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환경오염조사는 개발과 보존 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다. 공식적인 수질측정 단계로는 환경부 산하 환경출장소와 제주도 산하 보건 환경연구원 등 2곳이 있다. 이런 기관의 조사결과가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것과 그 결과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실태조사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먼저 외도천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제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상하천이라는 점이다. 상하천은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오염되면 다른 하천을 오염시킬 확률이 아주 높고 이런 하천은 보통 생활용수나 음용수, 농업용수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자다.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외도천 상부에 있는 무수천의 수질실태를 먼저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환경출장소의 조사자료를 갖고 지난 4월 중순에 보고회를 가졌다. 그것과 아울러 무수천 근처의 생태계 조사는 현지답사방법과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주민의 증언을 통해 조사했다. 또한 무수천 중류 지점구축인 조사결과 그곳에서 소택(물이 땅속에서 솟아 나오는 용천수)을 발견했다.

△발견이 중요한 점은 무수천이 오염됐을 때 용천수가 오염돼 다른 하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결과?

=현재 무수천을 통해 배출되는 생활폐수와 농업폐수의 영향이 아직까지 외도천상류에 있는 상수원수원지의 수질을 악화시킬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외도천의 수질이 과거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잉어나 미꾸라지, 뱀장어 등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거의 멸종단계에 와 있다는 걸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듣게 되었다. 현재까지 상수원수원지는 철저한 관리로 오염이 없다고 보더라도 하천주변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우선 경찰청 조사결과가 과연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다. 그렇지만 생태계의 오염내지 파괴현황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했는데 객관화를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어려움이 컸다. 또한 제주경찰청에는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사가 없어 제3의 단체인 환경출장소에 의뢰해야 한다.

는 점과 큰 6개월동안 매주마다 현지조사를 나가야 했으므로 재정적인 난관도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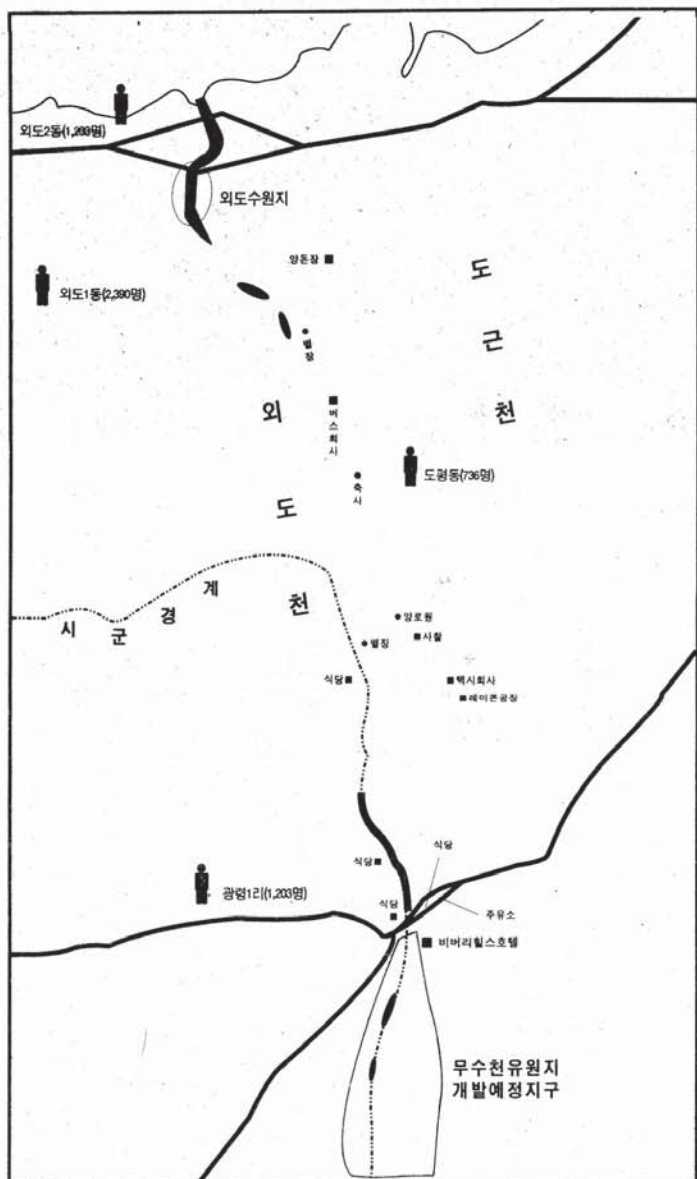
△조사 과정을 통해 모색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행제도는 환경영향평가비용을 개발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인데 이런 구조와는 달리 지방세로 지원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업자가 의뢰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서로 비교해 양측의 환경평가결과가 같아야 이를 인정해주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교차검토제' 채택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존 대책으로 오염배출물에 대한 총량 규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추후 경찰청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추진중인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리고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외도천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의 나머지 상하천인 창고천, 강정천, 용포천, 연화천 등 4대 하천을 조사할 예정이다. '푸른 이도'라는 모임에서는 상하천이 아닌 병문천 등과 같은 건천을 조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도 탐사를 맡고 있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제주도의 하천오염실태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제주도 환경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주도도 머지않아 환경의 악화로 일상생활에서 온갖 고충을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강정순 기자)



◇외도천 오염원 지도

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제주지역환경기준의 설정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실정에 적합한 제주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외도천과 같이 환경적으로 깨끗한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학계, 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정책기본법 10조(환경기준) 3항(지역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하여 제주지역환경기준을 설정, 시행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나서야 한다

행정기관 혹은 기업들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환경은 주민이 직접 나설 때만이 지켜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대안을 내세우며 환경보전을 내세워야 한다. 지자체 선거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지역개발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 주민들이 감시의 노력을 소홀히 하면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철저히 파괴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장 성 철
(제주경찰청사무국장)

알림

제43기 수습기자 추가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취재·사진·문화기자 6~10명
- ▲지원자격: 우리대학교 1학년
- ▲제출할 서류: 본사가 정한 양식의 입사지원서 1통
- ▲원서교부 및 접수: 5월29일(월)까지 대학원동(구학생회관) 3층 본사 편집국
- ▲전형: 5월25일(목) 오후 6시 본사편집국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문의사항: 제대신문사 ☎54-2278~9

PC는 멀티미디어시대, 프린터는 720DPI칼라시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720 DPI의 완벽칼라, 개성이 돋보이는 1,670만 칼라의 자유터치— 국내 최대 해상도,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프린터가 멀티미디어 PC의 다양한 화면출력까지 책임진다.

구분	720DPI에 +α	720DPI이기 때문이다
색감	100억 음영의 '올트라 파인' 인크의 반질해감, 막 한방울로 인쇄하는 '마하방식'의 선명한 칼라, '마이크로 유닛'이 기호를 한방울로 해결했다.	자연의 모든 색감, 사진을 놓아보는 선명도— 1,670만 가지 색상지침 등 720DPI가 공인 해상도를 지원한다.
기능	100억 음영의 '올트라 파인' 인크의 반질해감, 막 한방울로 인쇄하는 '마하방식'의 선명한 칼라, '마이크로 유닛'이 기호를 한방울로 해결했다.	기능은 프로그램, 가격은 미니멀리즘— 국내 최대 720DPI 해상도의 선명한 기능조건은 물론, 700원대의 가벼운 가격 조건까지!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프린터

대표전화: (02)390-2114
소문물 통신판매: 080-022-0770
고객상담실: (02)395-3535

□ 度羅樂은 耽羅의 음악인가?

어원·대일관계등 고려시 耽羅樂일 가능성 커

무속·불교적 성격의 무용음악... 탐라국문화규명 단서 제공

1. 일본 고대 사서에 등장하는 度羅樂은 어느 나라의 음악인가?

일본의 고대 사서 중 하나인 『續日本紀』에는 天平 3년(731년)에 행해진 雅樂祭 산하의 악생 정원개정 내용의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天平三年七月 乙亥 定雅樂祭 雅樂生員

大唐樂三十九人 百濟樂二十六人 高麗樂八人 新羅樂四人 度羅樂六十二人 諸縣舞八人 筑紫舞二十人 其大唐樂生 不言夏蕃取堪敬習者 百濟 高麗 新羅 等樂生 並取當蕃堪習者 但度羅樂 諸縣 筑紫舞生 並取樂戶 『續日本紀』卷11(天平 3年 7月 乙亥條)

당시 일본의 외래악 중 가장 많은 악생수를 기록하고 있는 '度羅樂'은 과연 어느 나라의 음악을 지칭하는 것일까?



현 행 복
음악학과 감사

여기에 대한 일본 사학계의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도라악이 동남아시아의 摩羅(현재의 태국 근방)의 음악이라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제주도의 고대 국가인 耽羅의 음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특히 기시베 시게오(岸邊成雄) 교수는 고대 서방 음악이 실크로드를 따라 일본에 동류한 西域優位論에 입각해서 볼 때, 도라를 동남아시아의 摩羅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아울러 이것은 661년 이래 때때로 來朝한 탐라의 음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아직까지 도라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일본인 이외의 외국학자의 경우로는 데이비드 워터하우스(David Waterhouse, 현재 토론토 대학 교수)의 논문 '도라악은 어디에서 왔는가?'(Where Did Toragaku Come from?)(1991) 정도 있을 뿐이다. (*필자는 이미 '日本 度羅樂에 대한 管見' 제하의 논문을 『韓國音樂史學報』(1993)에



◇ 데이비드 워터하우스 교수는 '도라악'을 탐라의 무속음악이라고 분석했다.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1회 국제음악학술심포지엄(1994년 7월3일, 대구)에서 주제발표를 가진 바 있다.)

도라악은 과연 탐라의 음악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요인이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가? 도라악이 탐라의 음악임을 입증하는 일은 당연히 탐라의 역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7~8세기 탐라와 일본과의 교류와 관련된 기록은 국내의 사료에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탐라의 대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탐라의 지정학적 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 耽羅 지명의 어원학상 입지적 형태와 상통하는 '타라'(度羅)

탐라의 옛 지명의 하나인 타라(毛羅·托羅)는 『三國遺事』와 『高麗史』에 그 기록이 등장한다. 이처럼 탐라의 명칭에 '타라'의 발음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때, 度羅의 음가 역시 단순히 '도라'로 만이 아니라 '타라'로 읽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度羅'를 '타라'의 발음체로 인정하는 저술에는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및 『韓國古地名辭典』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고대설화집인 『今昔物語集』에도 '度羅'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큐슈(九州)의 서남쪽 지역의 섬 度羅嶋에 다녀온 상인들의 이야기다. 일본학자들은 대부분 이 섬을 현재의 제주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今昔物語集』(東京: 岩波書店, 昭和38), 第5卷, pp.268-69. 참조) 따라서 度羅樂에서의 度羅가 耽羅의 지명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度羅樂은 곧 耽羅樂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본다.

3.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度羅樂

탐라가 일본과의 교류를 갖기 시작한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高麗史』 '地理志'에서 소개되는 탐라의 개국신화에도 從地魯出한 三神이 동쪽 바닷가에서 세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 중에 "저희는 일본국의 사자입니다"(我日本國使也)라는 기록에서 보더라도, 고대시대에서부터 탐라와 일본은 지정학적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헌상의 기록으로 공적 교류가 시작된 것은 백제가 멸망한 바로 뒤 해인 서기 661년부터이다. 『日本書紀』에는 661년부터 693년까지 32년 동안 탐라는 모두 13회나 일본정조에 사신을 파견했고, 일본에서는 2회 탐라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국가적 대외관계를 가지면서 문화교류도 행해졌을 것으로 상정해 볼 때, 三國(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뿐만 아니라 탐라의 음악도 일본의 雅樂祭 산하의 外來樂 가운데 하나로서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라악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탐라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되는 것이다.

특히 度羅樂이 성행했던 天平時대는 大化改新 이래 일본이 국가체제로서의 정비와 내부의 결집을 위해 물령을 제정하고, 불교를 정식 이념으로 채택하는 일련의 대내외적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인식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천황초 4년(752) 나라(奈良)의 東大寺에서 거행된 大佛開眼式(Todaiji Eye-Opening of the Great Buddha)이다.

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東大寺要錄'은 度羅樂이 의식음악의 하나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度羅樂, 四寺, 行道二反廻畢, 左右頌 堂前立, 左大臣以下擊鼓 着座" 『東大寺要錄』 '供養章'(高井英俊編)

東大寺가 당시 일본조정의 후원을 받는 國分寺의 본산이고, 그 건립이 바로 천황과 국가의 권위를 확대하고 다지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는 것은 일본 사서의 여러 연구 등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결국 당시의 탐라의 조정이나 사원에서 서역문화를 섭취하고 변용해서 발전시켜 나간 궁정국가의 모방을 일본정조도 따라서 흉내를 낸 것으로서 어쩌면 당에 대한 일종의 대항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음악적·종교적 요인으로서의 度羅樂

도라악이 탐라악이라고 할 때 그 음악적 특징과 성격은 무엇일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續日本紀』의 天平 3년의 기록에서 보더라도 度羅樂의 연주 담당한 악생이 62명으로써, 39명인 대당악에 비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는 여러가지를 시사해 준다. 특히 악생의 신분이 諸縣舞나 筑紫舞와 같이 樂戶의 신분을 공으로 견지한다는 점에서 도라악은 무용음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日本後紀』의 다음 기록은 바로 그러한 요인을 뒷받침해 준다고 본다.

無 論 有 說 어떤 놈이 만든 걸

모든 행동·생각은 윗사람을 닮아간다



원 해 남

좀처럼 식구들하고 외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가끔 식구들을 데리고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합니다. 같은 학과에 있는 동료선생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식구들과 함께 외출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닮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마누라와 애들에 대한 책임상 그래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 가서 눈요기도 하고 애들에게 레고블록도 사주고, 저녁도 먹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에 나오니까 뒷자석의 애들이 눈이 커집니다. 일어섰다가 앉았다 펄떡다다 제엄마한테 욕 한번 듣고 머리를 한바퀴 쥐어박고 난 후에야 조용해졌습니다. 시내에 차를 운전하고 나오면 짜증이 납니다. 그날도 예외없이 차들이 기어가는 듯이 중앙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갑자기 옆차가 방향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납니다.

"아니, 저 X같은 자식이, 저런 X같은 놈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니까"

나는 그 욕을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보통 때도 그런 욕을 하니까요. 뒷자리에 앉았던 둘째 삼촌이가 한마디 거들겁니다. 아, 조금전에 펄떡다다 엄마한테 혼난 것을 아빠에게 잘 보여서 만회해보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빠, 저렇게 하는 것은 X같은 나쁜 일이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아빠, 어떤 놈이 아빠 운전도 못하게 길을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

갑자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연기 속에 들어온 듯이 안

보이고 숨 막히는 시간이 잠시 흘렀습니다. 옆에 앉았던 애엄마가 눈치채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설명을 합니다.

"응, 아빠가 저 사람을 욕한 것은 저 차의 운전수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이란다. 저 차가 우리 차하고 부딪히면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삼촌이랑 모두 다 치잖아. 그래서 아빠가 삼촌이가 다칠까봐 화가 나서 욕을 한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절대 그런 욕하면 안된다. 알았지?"

겨우 주차를 시키고 지하상가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애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것저것 모두 사달라고 조릅니다. 보통때는 머리 몇번 쥐어박고 살 것만 사고 급히 나올 것을 잘 설명하여 달래서 하나씩만 고르게, 하고는 실컷 구경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또 사준다는 약속을 하고요.

내가 하는 말투는 애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배개를 빼고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 애들도 그대로 합니다. 양말을 벗어 푹푹 말아 한귀퉁이에 던져놓으면 애들도 푹푹 말아 던집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잠잘 때에 오른손을 오른쪽 엉덩이 밑에 깔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큰 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 했는데, 둘째 애도 그대로 합니다. 아마 점점 내 행동을

닮아갈 것입니다. 생각도 닮아갈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훌륭한 배움을 기반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겉치레로 해보는 말이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들은 저들도 모르게 애들이 닮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저 차의 운전수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이란다. 내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도 모든 일을 준비없이 대충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방학 때에 연구실과 실험실 문이 닫혀 있는 날이 많다면 그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밤에 불켜 있는 날이 많아지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늘 상대를 대할 때 화난 얼굴로 대한다면 그들도 동료나 후배를 대할 때에 화난 얼굴로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대학생활이 마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둘러싸인 감옥과도 같은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지도교수는 밤 열시가 넘어서야 퇴근하시던 분입니다. 어쩌다 화가 있을 때 퇴근할 때는 자주 미안해 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회의를 있어서'라는 계면책은 핑계를 대고 했습니다. 제주 대학에서 6년 넘게 생활하면서 큰 애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어렵잖이 알 것 같습니다.

(농화학과 조교수)

大同四年三月 丙寅 定雅樂寮雅樂師

歌舞師四人 笛師二人 唐樂師十人... (중략)... 高麗樂師四人... (중략)... 百濟樂師四人... (중략)... 新羅樂師二人... (중략)... 度羅樂師二人 鼓舞等師也. 伎樂師二人. 林邑樂師二人. 『日本後紀』, 卷17(大同 4年 3月 丙寅條)

度羅樂을 가르치는 선생이 담당 한 과목이 북(鼓)과 춤(舞)이었다는 기록은 결국 度羅樂의 음악적 내용이 무용음악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북(鼓)이란 어떤 종류이며, 무용의 성격은 분명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종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현재까지 일본에 전하는 도라악무에 쓰인 명칭으로 남아있는

것은 4종이 있다. 즉 「婆理(Bari)」, 「立久太」, 「邪禁女」, 「韓與楚楚女」이다. 이런 명칭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度羅樂이 탐라의 무속음악이라고 분석한 데이비드 워터하우스 교수의 견해가 더욱 흥미를 끈다.

그렇지만 度羅樂이 東大寺의 의식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점이나 인도의 불교악무인 라마야나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불교음악적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度羅樂에 사용된 북이 太鼓(Taiko)라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 銅鼓(일본어의 '도라'로 발음)과 동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度羅樂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고학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전망

度羅樂이 耽羅樂으로 파악됨을 고찰하는 일이란 곧 탐라의 고대 문화사를 재구하는 일과 다를 아니다. 음악은 다른 미술이나 건축 분야처럼 가시적이지 못한 관계로 그것을 고찰하는 일이란 여러 제약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진 가야의 문화가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을 것처럼, 度羅樂도 우리들의 탐라국 문화도 서서히 정형화될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도라악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처럼 탐라국 문화에서 한 자그마한 부분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위치를 미약하게나마 보여줌으로써 바닷속에 잠긴 어마어마한 실체가 있음을 암시해 준다.

英·日·中·獨·佛語

고려외국어

YMCA 건너편 보원약국코너

739-8000, 7000, 6000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프랑스

장기유학, 어학연수

유학상담

1995 여름학기 프랑스 언어연수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서울 Alliance 유학 상담실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파리 Alliance와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유학 정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95 알리안스 주관 시험

• DELF DALF 시험 실시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sé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éoul ☎ 555-1125, 1126 (강남)
taegu ☎ (053) 255-4630 (대구)

프랑스어인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Alliance Française

TOEIC이 너무 어렵다구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구요?

TOEIC® ACADEMY 'Plus'로 자신있게 시작하십시오!

TOEIC ACADEMY 'PLUS'는 매달 교재 2권과 Tape 4개로 공부하도록 구성된 통신 영어교재로서 TOEIC시험 준비를 위한 완벽한 지침서입니다.

집중학습 1

진도식 학습법
모두 2권의 교재, 4개의 Tape로 구성 되어 있으며, 12개월 동안 2단계에 걸쳐 단계별 학습이 실시됩니다. 월별 L/C 및 R/C의 학습진도후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테스트와 Easy TOEIC 테스트를 거쳐 마지막으로 정규 TOEIC 테스트를 치르는 과정을 2번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TOEIC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후 정규 TOEIC 테스트로 마무리하면 TOEIC시험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집중학습 2

다양한 학습자료
TOEIC 시험에 자신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꾸민습니다.
• 모의문제
• 정답해설
• 생황영어
• 제2차인 문법
• TOEIC 어휘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채워 넣어 초보지만 아니라 TOEIC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모든분들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집중학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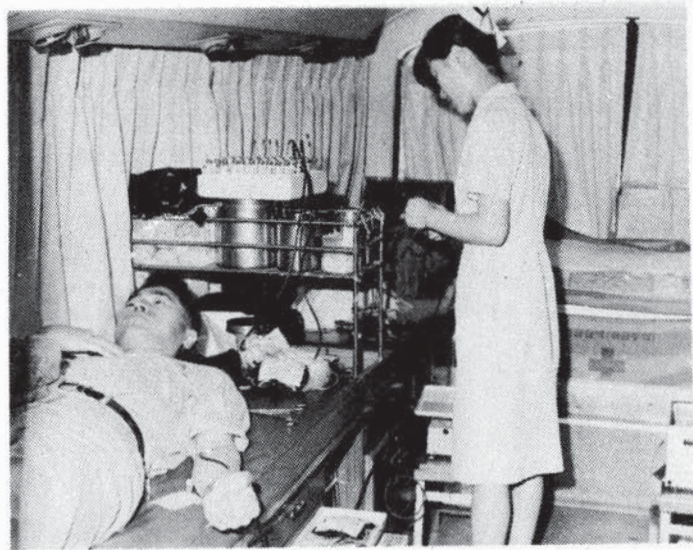
외국인 및 한국인의 생활한 녹음
4개의 Tape는 Native Speaker의 생활한 발음과 한국인 교수의 명쾌한 해설 강좌가 실려 있습니다. 외국인인 Slow Speed/Normal Speed로 알아주는 교재내용을 비교 확인하며, 자세한 해설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TOEIC ACADEMY PLUS의 구성
TEXT 1 (TOEIC 문제 및 해설) + Tape 2
TEXT 2 (정답해설 및 생황영어·어휘·문법교재)
- 총 교재 2권 + Tape 4개

YBM 사서로서 저회사

Korea Daily

문의전화 : 720~3600, 720~5621

헌혈증 모으기운동 전개 - 농학과 김충완학우 백혈병으로 사경 해매



◇경영학과 등에서 과전제 학우가 헌혈운동을 전개, 김충완학우에게 헌혈증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농학과(회장 고정민)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김충완(농학과3)학우를 살리기 위한 헌혈증과 성금 모으기 운동에 전 재대가 죽어 동참해주길 호소하고 있다. 농학과 학우들이 김충완 학우가 난치병으로 알려진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것은 지난 17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김충완학우는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과다한 병원비, 본인의 혈소판과 맞은 O형의 혈액형이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 등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학과 학우들은 23일 대학내 모든 건물에 '김충완학우를 돕자'는 대자보를 붙이는 한편 이날 하오부터 전 재대인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제주도혈액원인 협조를 얻어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학과에 의하면 대동제 전야제 기간(24일)에 소운동장에서 '김충완학우를 돕기 일일주점'을 열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김충완학우의 치료비에 보낼 계획이다. 또한 과학대학에서는 중앙대학교 등 서울지역 대학의 농과대학생회를 방문해 김충완학우의 사정을 설명하고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주길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는 농학과 학생회뿐만 아니라 단대생회, 총학생회 등이 주축이 돼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인 상오8시30분부터 10시까지 학교정문에서 김충완학우를 돕기위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경영학과(회장 김경호)학우들은 5월24일 1시부터 '과전제 헌혈운동'을 벌여, 이날 모인 1백40여명 학우들의 헌혈증은 김충완학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대미전'개최 2일까지 문예회관서

미술학과(학생회장 이경수 3)에서는 오는 26일부터 6월2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제23회 제대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배」(박영호 4)와 50편 △서양화 「성방제」(고민철 4)와 55편 △조소 「무제」(최창규 4)와 40편 등 모두 1백48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양해선학우의 '살속에서'.

고칠 지만 5월17일자 (526호) 7면 제충형 기사중 제충형(회장 오지근)한라전문대학을 동아리연합회(송종익 농학과 4)로 바로잡습니다.

4백1명에 2억8천여만원 지급 정산장학재단등 50개재단에서

올 1학기에 재학생 8천68명 중 4.9%에 해당하는 4백1명이 정산 장학재단등 50개 재단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의 교외장학금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담당관실(담당관 문철탁)의 발표에 의하면 단대학자이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학우들에게 각종 재단에서 지급되는 교외 장학금수혜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44명 증가했으며, 장학금은 작년보다 4천7백1만3천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외장학재단은 작년에 비해 좌우반문화재단, 김유비장학재단, 연강문화재단, 일산장학회, 윤경장학회 등 5개 재단이 늘어났지만 작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오던 정석장학회 등 5개 재단이 장학금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재단 수는 작년과 같은 5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외장학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산장학재단=수혜인원 25명, 지급액 1천7백50만원 △제주대학교 발전기금=20명, 1천7백63만5천원 △제주장학재단=13명, 1천1백5만

원 △홍산장학재단=20명, 1천5백만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9명, 7백36만6천원 △제대총동창회 장학재단=8명, 6백49만6천5백원 △좌우반문화재단=8명, 6백40만원 △김유비장학재단=5명, 5백만원 △제주이동통신=5명, 4백77만3천원 △한국전기통신공사제주본부=4명, 3백75만2천원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5명, 3백69만5천원 △해성문화재단=4명, 3백49만1천원 △정수장학회=4명, 3백27만7천5백원 △함덕장학회=3명, 3백30만원 △연암문화재단=4명, 3백27만7천5백원 △서남문화재단=3명, 2백70만원 △현오학술문화재단=3명, 2백1십만원 △금호문화재단=2명, 2백만원 △대산농촌문화재단=2명, 1백74만 원 △수협중앙회 제주지회=2명, 1백60만원 △고양부 삼성재단=3명, 1백50만원 △산악협동재단=1명, 1백35만원 △연강문화재단=1명, 1백25만원 △태학장학회 회장=2명, 1백20만원 △인산삼청문화재단=3명, 1백20만원 △삼송장학회(삼정전자)=1명, 1백5만원 △성안장학회=2명, 1백만원 △일산장학회=1명, 1백만원 △학산기술학재단(기아)=1명, 92만8천5백원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명, 87만원 △월해재단=1명, 87만원 △동부문화재단=1명, 73만9천5백원 △노영문화재단(이하산업)=1명, 60만원 △한국관광장학재단=1명, 23만원 △대학전기협회장학회=1명, 50만원 △윤경장학회=1명, 40만원.

출들하르방 마지막 자존심

유엔은 지난 5월1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회의를 마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각국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결의안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최고권위의 국제기구,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유엔에 규정돼 있는 인권에 관한 규약은 인권A규약과 인권B규약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인권A규약은 남반평등에서부터 시작해 노조활동의 자유, 어린이, 노

73만9천원 △총무처(위탁생)=3명, 2백7만1천5백원 △해군본부(위탁생)=2명, 1백79만8천5백원 △공군본부=1명, 2백48만6천5백원 △한국장학회(무상)=20명, 1백67만7천원 △육영장학재단=1명, 73만9천5백원 △한진건설=16명, 1천2백93만7천5백원 △대한항공=7명, 4백54만7천원 △제주문화방송=5명, 4백48만1천원 △한국관광=5명, 3백83만1천원 △한진관광=2명, 1백91만7천5백원 △한국항공=3명, 1백91만9천5백원 △경우장학회=2명, 40만원.

인, 장애인의 복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등 이른바 사회권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고 인권B규약은 사상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로 정치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19일간의 회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은 우리나라의 3개개입 금지조항이나 정외행위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에 대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교사들의 노동조합결성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면서 채택한 이번 결의안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인권B규약을 다루는 유엔이사회로부터

의 '국가보안법 철폐'권고에 이어 다시금 인권문제적으로 세계에 정평이 나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대국 특히 미국의 말이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했던 우리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되새겨 볼때 왜 인권문제가 있어서 민들은 그 '버티기'가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 자존심인가? 그러나 자존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이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인터뷰 10억상당의 과수원 기증한 김명신회장

"제대 발전, 곧 제주도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해 뒀던 것"이라며 "상당히 애착이 가는 땅이지만 제주대학의 발전이 곧 내 고향 제주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학교측의 대대적인 홍보와 부탁에 응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22년 전부터 정성스럽게 가꾸기 시작한 과수원을 기증한 동기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식회사 대림화학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신회장은 "어머니도 진주에서 살 의향을 비치자 혼자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계시다"며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어머니를 뵙기 위해 제주에 온다고 한다.

과수원을 어떻게 이용해 왔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과수원에 대한 권한은 학교측에 모두 위임했다"며 "발전지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학교에 재투자하든 시간에 상관하지 않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학교발전회 설립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해요"라고 말하며 요즘은 대학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금이 모여지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영인다운 충고도 잊지 않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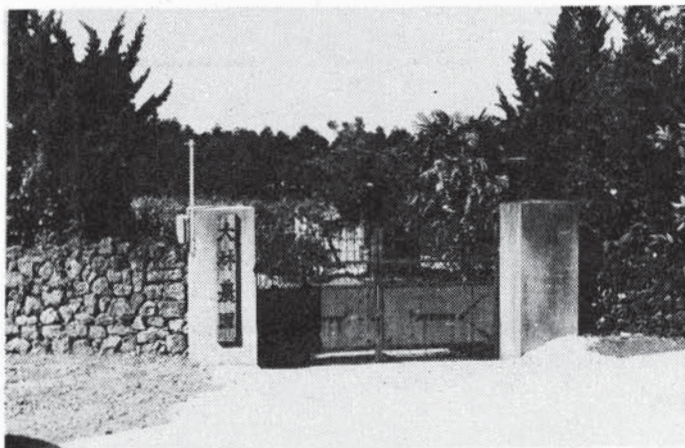
아울러 김명신회장은 "인생을 살다보면 힘들지 않게 성공할 수도 있고 좌절 또한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젊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실과 정직 그리고 진취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요"하며 후배들에 대한 충고도 덧붙였다.

서부경남 제주도민연합회장과 제주도 체육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그는 타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고향 제주도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92년도에도 우리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증한 바 있고, 현재 제주대학교 부산지역 발전위원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대학교 발전기금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신회장은 91년 석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내부부장관상 등 다수의 감사패와 표창수상경력이 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김명신회장의 모습에서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이 뜨겁게 느껴졌다.

(김한길기자)



◇김명신회장이 기증한 대림농원.

정부의 유아독존적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국내 8개 사회단체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우선 이들은 우리 정부의 유엔 보고서를 입수해 두차례에 걸쳐 '반박보고서'를 작성 유엔에 제출했고 이번 제네바 회의 기간중에도 장소영씨

등 4명의 대표를 파견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고 세계적 관심 속에 제도개혁이 된다면 매우 다양한 일이다. 다만 '제2의 헤이그 밀사 파견'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세계에 알려 바로잡아야 함이 가슴을 에이게 한다.

(권록수기자)

개교43주년 기념

제15회
CEBS

아라가요제



일시: 1995년 5월 26일 오후 7시
(오전11시6월3일 오후4시 제주대학교 체육관)
장소: 탐동 제주해변공원2차
주최: 제주대학교교육부속(CEBS)

대학발전을 위한 시민·학생 한마당

PROGRAM

- 개회
○ 개회선언 및 실무국장인사
○ 격려사(방송국장)
○ 심사위원소개
○ 내빈축사(장영연 도의위원장)
○ 내빈소개

- 제1부 창작가요경연
○ 가요경연(4팀)
○ 찬조출연: 대학연합댄싱팀 '프리움'
○ 가요경연(4팀)

- 제2부 축하공연
○ 초대가수 - 인치환
○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공연

- 폐회
○ 시상식 및 폐회
○ 심사자
○ 수상자 발표
○ 시상

찬조출연 ▶ 대학연합댄싱팀 '프리움'
▶ 제주대학교 농악대
▶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초대가수 ▶ 안 지 관
☆ 자유, 소란인형, 광에서
☆ 귀뚜라미, 우리라, 어느 별에서

운전 한라자동차학원

- ▲아리동, 제주대 통학로에
위치 / 편리한 교통
- ▲빠르고 친절한 운전교습
- ▲필기시험 강의
-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동쪽)

☎ 55-9900
56-7755

◆姜通源 紀行詩集 1 歐美 편

詩의 旅路



세계 여로의 異國情調
詩로 그린
자연과 역사와 문화
都市와 인간
그리고 그 삶의 風俗圖

백산출판사/4천5백원

